

‘親文’ 김경수 구속 여권 역학 구도 재편...박원순 몸값 상승

친문위기 속 “박원순 중립지역서 외연확대 유일하게 가능”



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부처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(親) 문재인계 핵심인 김 지사가 낙마하면서 여권내 대선주자들 간 역학구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.

일단 박 시장에 불리한 국면은 아니지만 박 시장 측은 여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든 상황인 만큼 그 같은 해석에 대해 극히 경계하고 있다.

사실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실형선고는 민주당을 잠약하고 있는 친문세력에게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다. 친문재인계 적자인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공작에 가담했다는 1심 법원 판결은 현 정권 정통성 자체에 치명상을 입힐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. 친문세력이 잠약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 지사 구속의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민주당 안에서 친문세력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박 시장의 활동반경은 넓어질 수 있다. 앞서 박 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했다가 이후 친문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다. 지난달 2일 서울시 시무석에서 박 시장이 등장할 때 문 대통령 헌정곡 ‘미스터 프리젠티드(MR. President)’가 흘러나오자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진 것은 박 시장에 대한 친문세력의 시선을 대변한다.

이울러 법원 판결로 인해 박 시장이 당내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.

안희정 전 충남지사,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까지 잇따라 낙마하면서 박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.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구의 후보자들은 당내 유력주자외의 관계를 과시하며 선거운동을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에게 접근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 박 시장은 짧은 시간 안에 당내 유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.

향후 대권경쟁구도에 있어서도 박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. 박 시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 이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문 대통령 후광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.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,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이 총리 31.2% 박 시장 14.9%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때문에 김 지사 구속으로 인한 이낙연의 공세가 문 대통령에 집중될수록 이 총리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. 이 경우 박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지지율 역전을 꾀할 수 있다. 박 시장의 당내 입지 확대는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. 친문세력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수록 민주당 전체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“박 시장은 친문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다. 친문과 비문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게 박원순”이라며 “박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중도 포기했다. 그것은 결국 친문에는 화해의 제스처였고 비문에는 문 대통령에 줄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. 중립지역에서 외연확대가 가능해 보이는 주자는 박 시장 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

다만 여권 재편과정에서 박 시장이 자칫 당내 분위기를 잘못 읽거나 실책을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.

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친문진영이 박 시장의 행보에 불쾌감을 표하며 언제든지 이 총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, 나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른 인사에게 지지세를 몰아칠 수도 있다.

이 때문에 박 시장과 측근들은 이번 김 지사 구속에 상당히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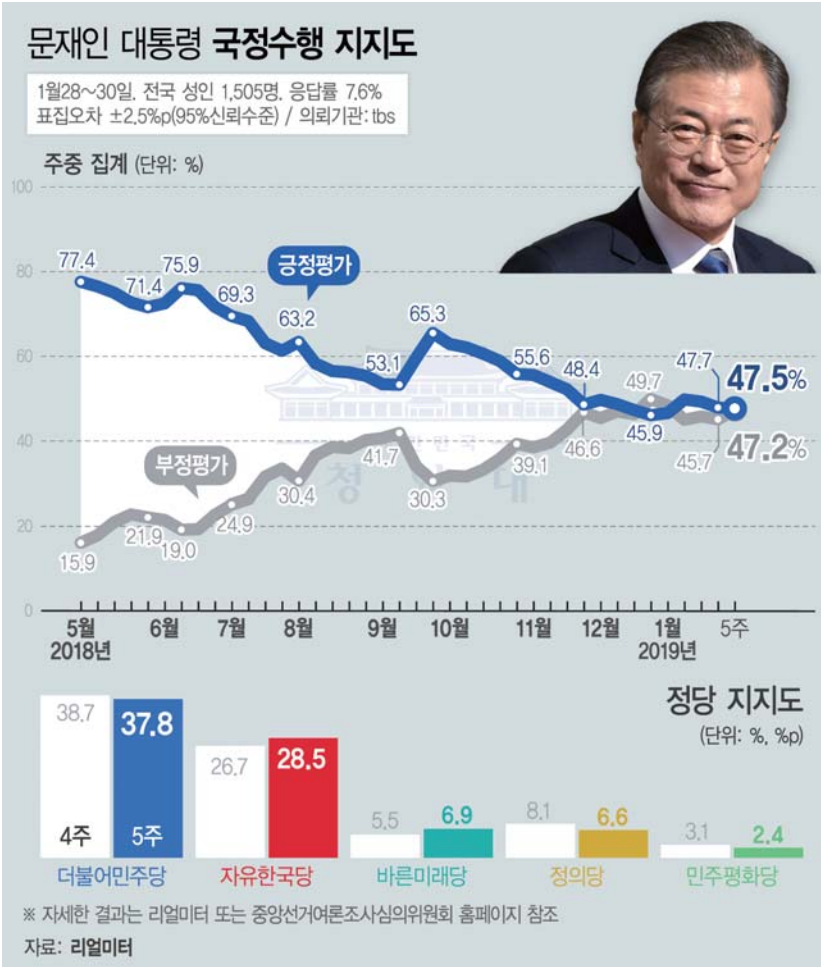
당장 박 시장은 “김경수 지사의 양심과 인품을 굳게 신뢰하며 남은 재판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밝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”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.

박 시장의 한 측근도 “전체적으로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. 그것은 박 시장에게도 유리하지 않다”며 “진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고 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높을 때 어느 후보든 (대통령)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유력 인사가들이 뜻하지 않은 영광한 사안으로 몰락하면 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진다”고 말했다.

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

文대통령 지지율 47.5%...‘김경수 구속’ 3주째 내림세

민주당도 3주째 하락...한국, 전당대회 영향 상승세



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.2%p 내린 47.5%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. 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’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소식이 전해진 30일 일간 지지율은 전날(49.9%)보다 2.9%p 떨어진 47%를 기록했다.

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its 의뢰로 지난달 28~30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공개한 1월5주차 주중집계(95% 신뢰 수준·표본오차 ±2.5%p·응답률 7.6%)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.5%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.5%p 증가한 47.2%(매우 잘못함 31.6%, 잘못하는 편 15.6%)로 나타났다. 모름·무응답은 1.3%p 감소한 5.3%로 집계됐다. 긍·부정평가 격차는 0.3%p 조 박빙으로 좁혀졌다.

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여론의 의혹 제기 공세가 있었던 29일까지는 오름세를 보였다.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30일에는 내림세로 돌아섰다.

지난 25일 47.5%로 마감한 일간 지지율은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두고 ‘방콕·환박 대통령’으로 비난했던 28일 48.4%(부정

평가 45.6%)로 올랐다.

그러나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30일에는 47.0%(부정평가 48.3%)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 하루 사이 긍정평가는 2.9%p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3%p 오른 것이다.

세부 계층별로는 경기·인천(▼4.4%p, 54.6%→50.2%, 부정평가 44.6%)과 대구·경북(TK)(▼1.7%p, 31.2%→29.5%, 부정평가 66.5%), 40대(▼9.2%p, 62.3%→53.1%, 부정평가 44.5%), 지역별(▼4.9%p, 39.1%

→84.2%, 부정평가 62.4%)과 가정주부(▼4.8%p, 42.8%→38.2%, 부정평가 52.5%), 진보층(▼4.0%p, 75.7%→71.7%, 부정평가 24.5%)에서 지지율이 고루 빠졌다.

반면 충청권(▲8.1%p, 41.9%→50.0%, 부정평가 44.1%)과 부산·울산·경남(PK)(▲1.3%p, 41.3%→42.6%, 부정평가 51.0%), 30대(▲5.9%p, 57.2%→63.1%, 부정평가 36.4%)와 20대(▲2.5%p, 48.9%→51.4%, 부정평가 39.0%), 노동자(▲5.8%p, 48.0%→53.8%, 부정평가 43.0%), 보수층(▲5.2%p, 18.2%→23.4%, 부정평가 74.4%)에서는 상승했다.

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0.9%p 하락한 37.8%를 기록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궤를 같이했다. 이는 3주째 하락한 수치로 리얼미터는 “김 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따른 것”이라고 풀이했다.

자유한국당(28.5%), 바른미래당(6.9%), 정의당(6.6%), 민주평화당(2.4%)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.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주 대비 각각 1.8%p, 1.4%p 올랐다.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각각 1.5%p, 0.7%p 하락했다.

한국당의 상승세와 관련 리얼미터는 “황교안 전 총리, 오세훈 전 시장, 홍준표 전 대표의 당권행보 행보 관련 언론보도 증가와 김 지사의 구속에 따른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

바른미래당도 지난해 5월 4주차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의당을 앞섰다.

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뉴스

이정미 “보이콧, 벌써 16번째...한국당 습관”

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“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또 ‘일 안하고 노는 국회’가 됐다”고 강하게 비판했다.

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“20대 국회 들어서만 (보이콧) 벌써 16번째다. 한국당은 2~3개월마다 습관처럼 보이콧을 선언해왔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

그는 “특히 이번 보이콧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1월 개

정안 처리가 무산됐다”며 “보이콧 남발로 국회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, 바로 그 신뢰를 이유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. 참으로 한심한 ‘제 얼굴에 침 뱉기’라고 일갈했다.

이어 “국민 신뢰가 문제라면 국회 개혁을 위해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”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손해의원원의 복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.

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

야호센터
인문-예술-사회참여로
청소년-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.

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.

야호의 꿈

-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
-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
-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
-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
-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
-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
-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, 더불어 살아가는 삶

062-960-6980
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